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Korean Catholic Church

26-40호

2026년 10월 4일 (가해)

연중 제27주일



Marten van Valckenborch - Parable of the wicked husbandmen (October),
Painting by Marten van Valckenborch (1535-1612),
© Kunsthistorisches Museum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주님께서서는 당신 포도밭인 교회를 끊임없이 가꾸시어, 가려 심은 새싹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WEBSITE



YouTube

미사 Mass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일요일 Sunday

9:30AM (English)

11:00AM (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Monday 10:30AM

화요일 Tuesday 10:30AM

목요일 Thursday 7:30PM

금요일 Friday 10:30AM

토요일 (매달 첫째) 10:30AM

First Saturday of the Month

고해성사 Confessions

일요일 Sunday

10:30AM - 12:30PM

고해성사 스케줄

- 10/4 윤지운 스테파노 신부님(Fr. Yoon)
- 10/11 최재석 프란치스코 신부님(Fr. Choi)

화요일 Tuesday

9:30AM - 10:30AM

토요일 (매달 첫째)

First Saturday of the Month

9:30AM - 10:30AM

성체현시 Eucharistic Exposition

화요일 Tuesday

9:30AM-10:30AM

목요일 (매달 둘째)

Second Thursday of the Month

8:00PM-8:15PM

토요일 (매달 첫째)

First Saturday of the Month

9:30AM-10:30AM

성당
Office
Hour

주일 Sunday 9AM - 5PM
화요일 Tuesday 10AM - 5PM
목요일 Thursday 3PM - 8PM

혼인성사 Sacrament of Marriage

Contact the office at least 6 months prior to the wedding date

병자성사 Sacrament of the Sick

Contact Fr. Chris

유아세례 Infant Baptism

Contact the office

주소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전화 (617) 558-2711

이메일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홈페이지 www.BostonKoreanCatholic.org



미사 지향 Mass intentions for this week

미사 지향은 일주일 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10월 4일(일) 9:30AM 교중 미사

10월 4일(일) 11:00AM (연) [돌아가신교우들과 연옥영혼] [최중법 바오로] [신분순 레지나, 김루카, 신카타리나, 연옥영혼]
[최인락 스테파노] [신현남 수산나] [송상훈 바오로] [Joseph Taylor] [김중환 요한]
[노정자 첼레리나] [이돈문, 이도선, 서용순 형제들] [정순희 마리아, 잔코엘, 군자코엘]
[이상현 요셉, 전아지 요안나, 이윤근 요셉] [황준하 요셉, 윤정희] [송은실 유스티나]

(생) [김천일의 세자녀들과 대자, 대녀들] [신대건안드레아 부부의 자녀, 대자녀]
[해지와 알렉스 감사] [유병순 마리아] [김윤교 베아티렉스] [Neve Mary-Clara Pribis]
[서정우 미카엘] [서준교 프란치스코] [이재현 알렉스] [Elena Dembinski, Jan Dembinski]

10월 5일(월) 10:30AM (연) 김재영 레오

10월 6일(화) 10:30AM (연) 송은실 유스티나

10월 8일(목) 7:30PM (생) 동유럽 순례단

10월 9일(금) 10:30AM (생) Suzanne Arbing

오늘 전례 Today's Liturgy

성가번호

입당 35

예물봉헌 340/210

영성체 159/163

파견 271

제1독서 이사 5,1-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집안이다.>

화답송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 이사 5,7ㄴ 참조)



◎ 주 님 의 포도밭 은 이스라 엘 집 안 이 라 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2독서 필리피 4,6-9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음 마태 21,33-43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주임 신부님 말씀 Pastor's Corner

사목 방향 Pastoral Direction / September 2026 - August 2027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A Gospel-Sharing Community]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15)

“Go into the whol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every creature.”(Mark 16:15)

네 복음서 읽기 / 50일 여정 Reading the Four Gospels / A 50-Day Journey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50일 동안 네 복음서를 함께 읽어 봅시다!

- 기간: 10월 2일 - 11월 20일 (50일)
- 범위: 마태오 · 마르코 · 루카 · 요한 복음서
- 신청 안내: 김점순 가브리엘라 복음화 분과장
- 이메일: gabrielakim3@gmail.com



일정표



ENGLISH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 4,4)

매일 읽은 복음 중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골라 작은 단톡방에서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노트에 기록해 주세요. 11월 22일 50주년 마무리 감사 미사 때, 50일 동안 기록한 노트를 주님께 봉헌하고, 참여하신 분들께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가능하면 7명 이내의 작은 단톡방을 만들어 함께 신청해 주세요. 개인 신청자는 따로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어드립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 선물 준비를 위해 반드시 사전 신청해 주세요.

오늘 말씀 Today's Readings

출처/ St. Paul Center, Steubenville, OH

전체개요

이번 주일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의 백성을 포도밭에 비유하며, 정의와 충실함, 그리스도와 의 일치를 통해 열매를 맺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5,1-7

이사야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교회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예언자는 신랑 신부의 이미지를 통해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고, 백성이 의로운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새롭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화답송 시편 80,9.12-16.19-20

오늘의 화답송은 죄로 인해 하느님의 보호를 잃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원수들에게 위협받는 백성은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회복과 주님과 관계 새신을 갈망합니다.

제2독서 필리피 4,6-9

바오로 사도는 기도와 감사로 걱정을 하느님께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께 맡기고, 진실하고 의롭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변화합니다.

복음 마태 21,33-43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포도밭과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돌을 떠올리십니다. 그분의 비판은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당신 백성을 돌볼 지도력을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포도밭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실천사항

오늘의 말씀은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을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과 의로운 행동,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고, 날마다 우리의 걱정을 하느님께 맡깁시다.

오늘의 성경 소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필리피 4,6)



ENGLISH

헤닝 대주교, 맥매너스 주교, 다 쿠냐 주교, 번 주교가 매사추세츠주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지난 6월 스페인 사도적 방문 중에 우리의 교황 레오 14세 성하께서는 인간 존엄을 수호하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모든 입법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정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곧, 어떠한 인간관이 법을 이끌며, 그 법은 어떠한 사회를 세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연설이 있는 지 불과 두 달 만에,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허용적인 낙태법 가운데 하나를 통과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매사추세츠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시민들, 곧 태중의 아기들과 그 어머니들을 심각한 위험 속에 내버려 두는 사회입니다. 이 법은 하나의 비극이며, 이 법의 제정에 가담한 가톨릭 신자 입법자들은 중대한 추문을 일으켰습니다.

「환자의 의료 접근 우선 보장법」(Prioritizing Patient Access to Care Act)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어떠한 이유로든 낙태를 허용하며, 어머니들에게 위험하고 태중의 아기들에게 잔혹한 이 끔찍한 시술을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은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병들었거나 불편을 주는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고, 모성은 여성의 자유와 안녕과 행복한 삶과 양립할 수 없다고, 그리고 어려운 진단 앞에서는 낙태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거짓되이 가르칩니다.

대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3년 Cureus Journal of Medical Science에 게재된 동료 심사 논문에 따르면,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의 60%는 더 많은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있다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성과 가정이 생명을 선택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임신부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와 의료인들, 특히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양심이 마땅히 괴로운 분들께서는, 태중의 연약한 아기들을 위한 생명 유지 치료가 보장되도록, 그리고 홀로 남겨져 벅차다고 느끼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녀를 자신 있게 맞아들이고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잊힌 이들을 보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교로서 우리는 모든 이가 가난한 이들, 태아, 병든 이들, 노인들의 존엄을 바라보기를 촉구합니다. 그 누구도 버려져도 되는 사람은 없으며, 그 누구도 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존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토대는 바로 이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환자의 의료 접근 우선 보장법」은 가장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부당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대립시킵니다.

레오 교황께서는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존엄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산이나 지위에, 또는 그가 내린 선택의 옳고 그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각 사람보다 앞서고 각 사람을 초월하는 선물로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발달 단계나 특성도 한 아이를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설령 그 생명이 짧거나 완화 의료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해악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며, 우리의 공직자들이 잉태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마다 맞이하는 생명 존중의 달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근본적인 선물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증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기회를 줍니다. 올해 여러분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 주(州)는 모든 인간 생명의 거룩한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의 잘못과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거스른 이 죄에 대해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직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선을 지키는 의무를 다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증언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또한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연락하여, 이 주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법을 바라는 여러분의 뜻을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현재 이 비윤리적인 법의 시행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폐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력에 함께하시어, 이 법에 반대하고 생명을 지지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함께 걷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9 참조)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의 문화는 가정과 본당과 학교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삶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생명을 증진하고 수호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길러 내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여성과 가정을 동반하고 지원하는 사목이 필요합니다. 이토록 급진적인 법이 있는 우리 주에서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보살피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무료 및 비밀 보장 임신 지원 안내
Pregnancyhelpboston.org



청원 서명 장소 찾기 등 법 시행 중단 및 폐지 운동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Repeal188.com



A Message from Archbishop Henning, Bishop McManus, Bishop da Cunha, and Bishop Byrne for the Clergy, Religious, and Lay Faithful of Massachusetts

In June during his Apostolic Visit to Spain, our Holy Father Pope Leo XIV delivered an appeal to defend human dignity and protect life from conception to its natural end. “Every legislative task,” he said, “ultimately confronts a decisive question: what conception of the human person inspires laws, and what kind of society do those laws build?”

Just two months after the Holy Father’s address, Massachusetts passed one of the most expansive and permissive abortion laws in the nation, telling us what kind of society they desire for Massachusetts: one which leaves its most vulnerable citizens—children in the womb and their pregnant mothers—at perilous risk. This law is a tragedy, and the Catholic legislators who helped to enact it have caused grave scandal.

The Prioritizing Patient Access to Care Act permits abortion throughout pregnancy for any reason, and it allows these grisly procedures—dangerous to mothers and cruel to their unborn children—to be performed in non-hospital settings. Laws function as teachers. This new law falsely teaches that human beings who are ill or inconvenient are not worthy of life; that motherhood can be incompatible with women’s freedom, well-being, and flourishing; and that no viable alternatives to abortion exist in the face of difficult diagnoses.

Alternatives do exist. A 2023 peer-reviewed article published in the *Cureus Journal of Medical Science* found that 60% of women considering an abortion would choose life if they had more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 We want to help women and families to choose life! We invite every expectant mother in distress to ask us for help. We ask that elected officials and healthcare providers—especially those whose consciences are rightly troubled by the new law—work to ensure that life-sustaining care for vulnerable children in utero and that mothers and fathers who feel alone and overwhelmed have all they need to welcome and raise their children with confidence.

The Lord Jesus Christ saw the forgotten and reached out to the neglected. As Bishops, we call upon all to see the dignity of the poor, the unborn, the sick and the elderly. No one is expendable, no one is a burden. All have a sacred God-given dignity. The foundation of social justice is this inviolabl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The Prioritizing Patient Access to Care Act unjustly condemns to death our most vulnerable children and pits a mother against her own child.

In his Encyclical *Magna Humanitas*, Pope Leo teaches: “Human dignity does not depend on a person’s abilities, wealth or position in life, nor on the right or wrong choices made; instead, it is a gift that precedes and transcends each person, endowed by God as an expression of his unfailing love.” There is no stage of development or characteristic which would render a child unworthy of life—even if that life will be short or require palliative care.

May Our Lord Jesus Christ protect us all from harm, may He inspire us with self-giving love, and may He guide our civil leaders to enact laws which protect and promote the dignity of every person from conception to natural death.

What Can We Do?

Each year, Respect Life Month offers the opportunity to renew our reverence for life and take concrete actions to witness to the beauty and sanctity of this foundational gift of the Lord. Here are some of the concrete actions you might consider this year:

We Pray.

First and foremost, we pray. With the passage of this bill our leaders and our Commonwealth have failed in the duty to uphold the sacred dignity of every human life. In prayer, we seek the mercy of a loving God for our failures and for this sin against His Law of Love. We pray for our civil leaders that the Lord will give them wisdom and strength to do their duty to protect life and uphold the common good.

We Witness.

As disciples, we are also called to give witness. We urge you to contact your representatives and make known your desire for just laws which protect every person in this state.

We speak up

There is also an effort underway to pause and even possibly overturn this immoral law. We encourage you to take part in this effort and raise your own voice in opposition to the law and in favor of life.

We walk with families

Scripture commands us “Choose life that you may live” (Deut. 30:19) A culture of life requires families, parishes, and schools to live that reverence for life. We need families who form their sons and daughters in the summons to promote and defend life. We need ministries that accompany and support women and families in crisis. In our state with such a radical law,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us to make clear our desire to welcome and nurture the gift of life.

[For Free and Confidential pregnancy support visit
Pregnancyhelpboston.org](https://Pregnancyhelpboston.org)



[To learn more about the Suspend and Repeal Effort,
including finding a petition signing location, visit
Repeal188.com](https://Repeal188.com)



2차 헌금**2nd Collection**

- 10월 4일 주일 - Holy Father & Apostolic works
- 10월 18일 주일 - World Mission Sunday(선교주일)

소공동체 모임**구역모임****Regional Meeting**

- 중부 구역: 10월 9일(금) 6:30PM, 친교실
- 서부 1구역: 10월 17일(토) 5PM, 친교실

우니따스 청년회**Unitas Young Adult Group Meeting**

- 일시: 오늘 10월 4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해바라기(6,7학년) 방

기도, 교육, 피정**목요 성령기도회 시작****Thursday Charismatic Prayer Meeting Begins**

9월 17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미사 후 성령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0월 22일까지는 다가오는 '은혜의 밤' 을 위해 기도하는 청원기도회로 진행됩니다.

- 일시 및 장소: 매주 목요일 미사 후 본당 성전
- 문의: 김성일 바오로, sungil.km@gmail.com

UMB 성경공부모임 (영어교재)**Bible Study for Adults**

성인 신자들을 위한 성경공부 모임에 초대합니다. Unlocking the Mystery of the Bible 라는 영어교재를 사용하여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UMB 성경공부모임" 입니다.

- 날짜: 매주 금요일 7:30PM
- 장소: 교육관 다이닝룸

특히 기존 청년회와 장년층 사이의 30-40대의 성인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담당자: 전해림 로사리아, clairehjeon@gmail.com

가을특강**Fall Spiritual Seminar**

- 주제: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
- 강사: 김우중 스테파노 신부
- 일시: 10월 10일(토) 1-5PM
- 내용: 강의1,2 1-2:45PM / 성체현시 3PM(고백성사) 미사 4PM
- 장소: 본당 성전
- 주최: 보스톤 CLC
- 문의: 김영아 마르티나, Youngamartina@gmail.com

수녀원 10월 피정**October Retreat in Holyoke**

- 일시: 2025년 10월 15일(목) - 10월 16일(금)
- 장소: 1039 Northampton St., Holyoke, MA 10140
- 참가비: \$150 선착순 12명
- 신청문의: 김클라우디아 수녀, (929) 920-6591

은혜의 밤**A Night of Praise and Grace**

- 일시: 10월 24일(토) 9AM - 7PM
10월 25일(주일) 1PM - 7PM
 - 참가신청: 9월 27일(주일)부터 성당 입구
 - 문의: 김성일 바오로, sungil.km@gmail.com
- 식사 및 초 준비 등을 위해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갤럽 단기 선교: 나바호 원주민 거주지역**New Mexico Gallup Mission Trip: Navajo Nation**

- 기간: 2027년 4월 17일(토) - 21일(수) 봄방학 기간
- 대상: 고등학생, 학부모, 멘토
- 봉사 활동: 무료급식소, 원주민 노인 요양소, 가톨릭 자선회, 어르신 가정 방문, 피정집 보수 등등
- 신청 마감: 10월 31일(토)
- 문의: 강효정 프란체스카, khjreim@gmail.com

2026-2027 주일학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Online Registration for Sunday School Has Begun!



주일학교 등록

공지사항 Announcements

기타

본당 봉사자를 위한
CORI form 작성 및 VIRTUS-PGC 교육

PGC Training for Volunteers

본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봉사자는 모두 CORI form 작성과 VIRTUS-PGC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CORI form 작성] 성당 사무실
[VIRTUS-PGC 교육]

- 일시: 오늘 10월 4일(주일) 1-4PM
- 장소: 교육관 지하 강의실
- 문의 이메일: VIRTUS@bostonkoreancatholic.org
- 오른쪽 QR code 를 사용하여 사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VIRTUS
사전등록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50th Anniversary Parish Concert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기념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음악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일시: Saturday, October 17, 7PM
- 장소: 본당 성전
- 문의: 권정규 프란치스코, bostonmentors@gmail.com



혹시 다니시는 직장에

Matching Gift Program이 있나요?

Corporate Matching Gift Program?

우리 성당이 Corporate Matching Gift 가능한 리스트에 있습니다. 혹시 다니시는 회사에 Matching Gift Program이 있으면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봉헌금/교무금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학교: 성당 Renovation 후원

Korean School: Support for Parish Renovation

한글학교는 그동안 영사관 보조금과 수업료 등을 통해 수십 년간 정성껏 운영기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 한글학교는 그 기금 가운데 \$35,000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본당 친교실 내 교실 Renovation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임신부님의 의견에 한글학교가 뜻을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한글학교에서 마련한 소중한 기금은 본당 공동체의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본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뜻을 함께해 주신 한글학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Parish Giving

2026년 9월 27일

Online Giving
QR codeVenmo
@sadb-sadb

성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주 평균 \$10,300이
필요합니다.

교무금 Monthly Pledged Giving	\$2,110.50
----------------------------	------------

주일헌금 Sunday Collection	\$2,467.83
------------------------	------------

미사예물 초과금 (신학교 지원) Excess Mass Offering (Donated to the Seminary)	\$930
--	-------

교무금 Monthly Pledged Giving

곽성은(9)	금한이(9)	김수환(9)	김유상(9-10)
김재희(9)	서기옥(9)	송용식(9)	양수빈(9)
양지선(10)	이승주(11-12)	장인희(7-9)	조몽신(9-10)
조수연(9)	현기완(9)		

친교음식 후원자 Communal Meal Sponsors

- | | |
|-------------------------------|----------------------|
| • 10/4 조상준 | • 10/11 익명 |
| • 10/18 안길남 | • 10/25 박영찬 |
| • 매달 쌀 2포대
[김패밀리] | • 매달 \$500
[한국학교] |
| • \$2,200 (9/27) 박영찬, 조상준, 익명 | |

많은 분들의 후원과
참여 바랍니다.

Any amount of
support is greatly
appreciated
toward the
communal meal.

가톨릭 어필 Catholic Appeal

- | | |
|-------------------|----------|
| • 우리 본당 목표액 | \$31,800 |
| • 현재 누적 총합계 (87%) | \$27,730 |

St. Antoine Daveluy Parish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묵주기도 봉헌
50th Anniversary Rosary Offering

- 우리 본당 목표
- 현재 누적 총합계

50,000 단
54,537 단

5만 단 이상 달성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 Announc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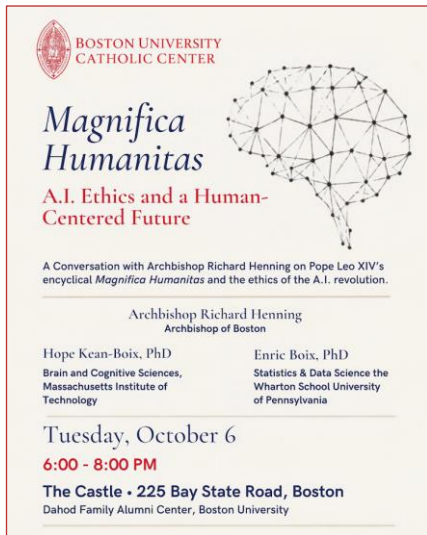
주보공지는 매주 **월요일까지** 신청바랍니다.**AI 윤리와 인간 중심의 미래****AI Ethics and a Human-Centered Future**

보스턴대학교 가톨릭센터(Boston University Catholic Center)에서 AI 윤리와 인간 중심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개최합니다.

- 일시: 2026년 10월 6일(화) 6PM – 8PM
- 장소: The Castle, 225 Bay State Road, Boston
(Dahod Family Alumni Center, Boston University)

참석자:

- Richard Henning 대주교 - 보스턴 교구장
- Hope Kean-Boix, PhD - MIT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 Enric Boix, PhD - University of Pennsylvania, Statistics & Data Science


우리 성당 모든 미사 강론, 강의 영상 보기
Watch Homilies & Talks from Our Parish


YouTube



Instagram



Facebook

50th
 ANNIVERSARY
 1976 - 2026

세대를 잇는 믿음, 50년의 은총
(Faith Across Generations,
50 Years of Grace)이란 슬로건으로
50주년 기념행사들을 준비합니다.

50주년 기념 음악회

**10
17**
10 추억의 사진전

전신자로부터 자료 수집

**10
24**
10 은혜의 밤 10.24-10.25

성령기도회 주최

감사 미사

**11
22**

기념 사업 마무리 및 결산

오늘 친교음식 Communal Meal

- 담당: 동부 구역
- 음식: 돼지고기구이, 두부김치, 콩나물 무침
배추 된장국, 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인 식판/접시를 집에서
가져 오셔도 좋습니다.

차량, 집 축복 Blessing of an Automobile / a House

아직 차, 집 축복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주세요.

- 사무실 **(617) 558-2711**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Help us help more people

주변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인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교통 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

주일 미사 참여에 운전이 불편하여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형제님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우찬 요셉 **(617) 529-0427**
- 정성문 사도 요한 **(617) 447-0746**

주일주차지침

Sunday Parking Policy

성당 주차장은 장애인, 어르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른 분들은
Street Parking을 이용해주세요.


**Church
Parking Map**

연락처 Contact List

주임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 Fr. Christopher Bae	frbae@bostonkoreancatholic.org
보좌신부 김재익 요셉 Fr. Joseph Kim	frkim@bostonkoreancatholic.org
상주신부 윤지운 스테파노 Fr. Stephen Yoon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종신부제 김천일 찰스 Deacon Cheonil Kim	cheonil.kim0@gmail.com
종신부제 서준교 프란치스코 Deacon Francis Suh	deaconsuh@bostonkoreancatholic.org
사목회장 이인호 분도 Mr. In Ho Lee	ihlee@bostonkoreancatholic.org
사무장 정정순 루시아 Ms. Lucy Jeon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각 구역장 Regional Group Leaders

남부구역 Dedham, Stoughton / 홀수달 셋째 토요일 (7, 8월 없음)	신용준 스테파노, umaysay@gmail.com
동부구역 Cambridge, Newton / 매달 첫째 토요일 (7, 8월 없음)	이수진 이르미나, lloo8800@gmail.com
북부구역 Andover, Methuen / 홀수달 넷째 토요일 (7, 8월 없음)	박영찬 베네딕토, dmdpark333@yahoo.com
서부1구역 Weston, Worcester / 짝수달 셋째 토요일 (7, 8월 없음)	강상원 바오로, sangwon_boston@yahoo.com
서부2구역 Acton, Leominster / 짝수달 넷째 토요일 (7, 8월 없음)	이훈주 도미니카, chlee7208@gmail.com
중부구역 Burlington, Lexington / 매달 둘째 금요일 (7, 8월 없음)	김윤익 돈보스꼬, yoonik.kim@gmail.com
ENGLISH구역 MA, NH, ME, RI / 짝수달 둘째 토요일	ChristinaTaborsky, ctaborsky@bostonkoreancatholic.org



각 구역의
자세한 지역은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신심단체 Devotions

레지오마리아 매주(화) 미사 후 친교실, 매주(목) 미사 후 복사단 방 매주(금) 미사 후 복사단방, 매주(일) 9:40AM 사제관 미팅룸	윤윤선 수산나, yun56007@gmail.com
파티마 쉼기도회 매주(화) 미사 후 친교실, 매주(토) 10:30AM Zoom 모임	이정은 크리스띠아나, bigtreemyhome@gmail.com
성령기도회 매주(목) 7:30PM 미사 후 본당 성전	김성일 바오로, sungil.km@gmail.com
가톨릭 성서 모임(CBLM) 대면 또는 비대면 모임, 시간 주보 공지	정미경 파라, bostonkoreancblm@gmail.com

교육 / 활동단체 Regional Parish Groups

예비신자 교리반 시간 주보 공지	김아람 마리아나, ahramkfoto@gmail.com
주일학교 매주(일) Mass 9:30AM / Class 10:30AM 친교실	보좌신부, SundaySchool@bostonkoreancatholic.org
한국학교 매주(일) 1:30PM - 3:30PM 친교실	서용학 아오스딩, yhseo304@gmail.com
카리타스 성가대 정기 연습 매주(일) 10AM 사제관 지하 소성당	권정규 프란치스코, Bostonmentors@gmail.com
성소후원회 매월 넷째(일) 11시 미사 후 사제관 미팅룸	정승욱 발레리나, Sungok1208@gmail.com
상록회 매월 셋째(일) 11시 미사 후	박수균 이나시오, (617) 875-1801
밀알회 시간 주보 공지	김동호 요셉, dongho1980@gmail.com
반석회 매월 셋째(금) 6:30PM 친교실	이랑경 에스텔, estel71714012@gmail.com
청년회 매월 첫째(일) 11시 미사 후	하경철 안드레아, andrewha2019@gmail.com
High School Club 시간 주보 공지	현기완 석문 가를로, kiwan.hyun.research@gmail.com



김성군변호사 (Song K. Kim E.S.Q.)
상해법 / 이민법
www.songkimlaw.com
(781)438-6170
 160 Main St. Stoneham, MA 02180

한국 채색화 · 민화 수업
 Korean Traditional Painting · Minhwa Class

한국화 화실
Korean Art Studio
숲

한국화의 기본부터 나만의 작품까지
From the Basics of Korean Painting
to Creating Your Own Artwork

doyeontree@gmail.com
 617-835-8457
 Burlington, MA

백 우 종 치 과

617-630-2828, 617-276-7692 (한국말)
www.baekdental.com
 1400 Centre St. #106
 Newton Center, MA 02459



변 카타리나 ART STUDIO

310) 985-3737
 132 Adams St, Suite 11, Newton
artwithcatbyun@gmail.com

- Pratt, SAIC, SVA, SCAD, MICA, Hunter College, BC, Cornell, Harvard, NYU, Purdue, U Penn
- Scholastic, National 수상 다수 · 전학상당 환영

원 플러밍

히팅시스템 수리
레노베이션
디스포설
플러밍 수리

온수, 탱크
개스
MA 라이선스
보험 가입

대표: 박우진 전화: 617-909-3040
email:oneplumbing315@gmail.com

Holism in Real Estate
부동산 중개,
융자,
건물관리를
한 곳에서

BostonGaia.com
류영옥 안드래아
617-777-2929
help@GaiaRealtyAdvisors.com
 카톡ID: GaiaBoston

GAIA REALTY ADVISORS

Oppa Sushi Restaurant
 횃집 스타일 코스요리, 캐터링 가능

신승철 아브라함
 185 Harvard Ave.
 Allston, MA
(617) 202-3808



아이콘 덴탈  **ICONDental**

치과의사 안형준 (프란치스코)
 치과의사 차영주 (글라라)

57 Bedford St. #220, Lexington, MA 02420
781-861-8978(병원), 617-957-8133(응급)
www.icondentallexington.com

KAJU 
 Korean Cuisine
 Business Hour
 Mon - Sun
 11AM - 9PM

“저희는 여기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마태오 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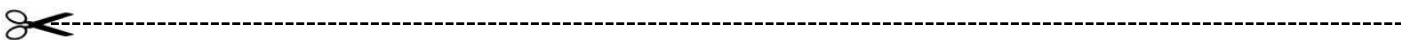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208-8540



보일러, 냉난방, 수도 배관
 가스, 화장실, 디스포저 설치

신속, 안전, 철저한 서비스!
 <MA 라이선스 소지>

엄재관: 978-303-7000
 엄기선 (요한): 617-835-4778



새신자 등록 / New Parishioner Registration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신청일 / Date (YYYY/MM/DD)	구역 / Region
성명 / Name 한글 / Korean	성명 / Name 영문 / English
세례명 / Baptismal Name	
전화 / Cell	이메일 / Email
주소 / Address	

작성하신 후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Please turn it in to the office.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oine Daveluy Korean Catholic Church